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소식을 드립니다.

날씨도 춥고 살기도 힘들고 전망도 별로 밝지않은 요즈음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도 꺼내기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도 한가지 올해가 양의 해라기에 이 세상에 악한 인간들이 제발 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게 됐으면 하고 간절히 빕니다.

지난 해에 비로소 후원회가 준비모임으로 출범을 했고 또 이런 형식의 정치인 후원회가 없었던 상태에서 그야말로 처음으로 걸음마를 배우는 심정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회원님들의 진솔한 성원으로 후원회의 모습이 제대로 갖추어 지고 또 저희들 스스로도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조금은 알았기에 후원회의 앞 날은 밝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겨레신문은 우리 노무현후원회를 가장 바람직한 정치인후원회로 꼽았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진정 우리 후원회만큼 진실하고 사심없이 투명한 후원회는 이땅에 없다고 감히 자랑을 하며 회원님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91년 1월 5일 MBC TV에서는 한국의 정치학자들이 뽑은 차세대 지도자가 발표 되었는데, 노무현씨는 9명 중에서 이기택씨와 함께 공동 4위였습니다. 우리 후원회는 이러한 발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순간에도 전국을 다니며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를 목이 아프도록 외치는 노무현씨가 당당하고 의연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제 정국은 지방자치제 선거로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깨끗한 선거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은 바른 정치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처절한 비원이지만 그 비원을 저버리는 정치인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올바른 정치를 이 땅에 정착 시키기위한 선구자가 되어 불법선거를 감시하고 바른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정말 할 일이 많고 또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 냅니다.

우리는 바르고 곧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갑니다. 정의는 나쁜 편에 서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정에 웃음이 늘 가득하시고 소망 하시는 것 모두 이루십시오.

1991년 1월 20일

노무현후원회 대표 이기명 올림

0032077